

밝은 미래의 동산을 위하여 座右銘의 기(氣)를 받자

요즘 교정을 지나가다 가끔 학생들에게 너희는 座右銘이 무엇이라고 물어보곤 한다. 그럼 대답하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다. 심지어는 座右銘의 뜻도 모르는 학생이 있다. 한문시간에 배울 법도 한데 기억이 나질 않거나 座右銘을 생각해보지도 않은 듯하다. 座右銘이 없다고 바른 인성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나쁜 성정이나 습관을 경계(警戒)하고 고칠 수 있는 훌륭한 스승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철형
교감선생님

그럼 선생님은 언제부터 座右銘을 옆에 지니고 살았을까? 고등학교 1학년 때 하숙하면서 책상 위 벽에 “남에게 피해를 말자”라는 평범하지만 지키기 쉽지 않은 座右銘을 적어놓고 늘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면서 학교생활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지금도 변함없이 늘 생각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한 동산교에서 긴 세월 근무하면서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座右銘을 또 하나 갖게 됐다. 그것은 “초심을 잃지 말고 늘 처음처럼”이라는 座右銘(初志一貫)이다. 항상 내가 힘들어질 때 처음 가졌던 마음 고마웠던 마음을 되새기며 힘을 내곤 한다. 누구나 아킬레스건 같은 자신의 단점이나 고쳐야 할 점들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은 타고난 성정(性情)이나 습관에 의해 굳어져서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자신의 인생과 운명에 절대적 영향을 준다. 대체로 성공인생, 존경의 인생을 산 사람은 좋은 성정이나 습관이 요인이 되었고 실패인생, 지탄의 인생을 산 사람은 나쁜 성정이나 습관이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나쁜 성정이나 습관을 그냥 소홀히 두어서는 안 된다. 마치 평소에 지니고 있는 지병이 증병이 되는 것처럼 평소에 나쁜 성정이나 습관이 인생의 증병이 되므로 나쁜 성정, 습관은 끊임없는 노력으로써 고치도록 해야 한다. 치료방법으로서 한학자인 김기 박사(前

동산고에서 긴 세월 근무하면서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座右銘을 또 하나 갖게 됐다.

그것은 “초심을 잃지 말고 늘 처음처럼”이라는

座右銘(初志一貫)이다.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座右銘요법’을 제시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공자, 마음이 병을 치유하다.’에서 ‘마음속에 좋은 글귀를 강하게 주입시켜 놓으면 무의식중에 그 글귀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 하면서 ‘의사가 환자의 증세에 따라 처방하듯이 座右銘으로 삼을 글귀도 자신에게 맞는 글귀 즉 자신의 나쁜 성정이나 습관을 경계(警戒)하고 고칠 수 있는 글귀여야 한다.’라고 했다.

2000년대 들어 인성교육을 무척이나 강조한다. 1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까지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는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생소하면서도 익숙한 단어가 우리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다. 급속도로 발전해가는 산업사회가 수많은 장점도 있지만 그로 인한 폐해도 적지 않아 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성격파탄자, 흉악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매일수룩 ‘마음속에 좋은 글귀를 강하게 주입시켜 놓으면 무의식중에 그 글귀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 동산인이여, 나의 座右銘을 적어보자.

그리고 정성껏 소리 내어 읽어서 座右銘의 기(氣)를 받도록 하자. 그리고 座右銘 하나씩 가슴에 새기고 매일매일 읽으며 마음을 다 잡으며 실천해 보자! 밝은 미래의 동산을 위하여!